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7(土)	8(日)
구름 많음 5/18℃	구름 조금 6/17℃

News

- 거금도 연도교 사고 ③
- 삼삼오오 워킹 아시아요 ④
- 서재응 첫승 불발 ⑩

Jeollado

- 그 사람·박행보 화백 ⑦



Entertainment

- 연예인 가족 뜬다 ⑧
- 임권택 영화 '천년학' ⑨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들깨 ⑬



우암학원 창설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담전화 1588-5051 ▶ T.(061) 360-5000



작설차 제조 명인 신광수씨가 둘째 딸인 선미씨와 함께 최고품 작설차인 '승설차' 원료가 되는 '햇음(갓나온 새싹)'을 따고 있다. 이 햇음 4만5천개가 모이면 국내 백화점 명품관에서 120만원에 팔리는 50g의 승설차를 만들 수 있다. /위정림기자 jrwi@kwangju.co.kr

日人도 반한 세계 명품 '승설차'

■ 승주 작설차 명인 신광수씨 제조

조계산 기슭 차 '햇음'으로 만들어
3대째 이어가... 올해 日수출 10억

“차는 자연과 인간 합일의 매개체입니다. 또한 남도문화의 귀결점이자 저에게는 새로운 생명이기도 합니다”

100g당 240만원대에 팔리는 국내 최고 품질의 녹차를 생산,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승주 야생작설차 제조 전통식품 명인' 신광수(57)씨는 요즘 순천 선암사 조계산 기슭에서 차 '햇음'을 따느라 여념이 없다. 고려시대 때부터 최고품 녹차로 전해오고 있는 '승설차'를 만들기 위해서다.

신씨의 녹차 사랑은 선대로 올라간다. 그의 선친인 정호 스님은 고령 신씨 종가의 4대 목자였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 겨우 첫 물을 지냈을 무렵 남편이 세상을 뜨자 신씨 할머니는 묘향산과 금강산, 조계산 등에 있는 전국 유명 사찰을 돌며 자식의 무병장수와 대 잇기를 기원했다.

“그러던 중 할머니께서 선친이 6세 때 선암사에서 경운 스님을 만났습니다. 경운 스님이 ‘두 가지 소원을 이루려면 나한테 예를 맡겨라’고 해서 할머니는 종중 재산을 정리하면서까지 스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신씨는 초등학교 때 북막염으로 2년여 고생하던 일, 중학교 졸업 후 황달로 고생하는 등 어린 시절 죽음의 고비를 서너 차례 넘겼다. 때문에 한약을 달고 살아야 했으나 한약 보다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녹차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그는 순천중학교를 졸업한 1967년부터 선암사 불교전문대학에서 5년여 동안 공부하면서 차에 대해 본격적으로 식견을 익혔다.

“내가 만든 차를 마시면서 뒷골이 오싹할 정도의 환희를 느낍니다”

신 명인의 다업은 1979년 이후 본격화됐다.

그는 이후 8년 동안 선암사 인근의 4만여평 차밭을 가꾸는데 만족하지 않고 12만평의 차밭을 새로 조성했다. 그가 이렇게 다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1982년 일본 다투품평회에서 최고상을 받고서 가능했다.

“미국 대사관 직원이 우연히 저의 집에 들렀다가 차 맛을 보고 품평회에 내렸으며 차 200g을 가져갔어요. 일본에서 최고의 녹차로 인정을 받아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당시 국내에서 최고 녹차 가격은 100g에 1만2천원선. 신씨의 녹차는 10만원 이상을 받았다. 그는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땅을 사고 녹차생산 시설을 지었다.

하지만 1988년 일본에서 차 매매를 이어주던 우가와 세이이씨가 타계하면서 수출길이 끊겼다. 말이 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법이 없었다. 둘째 딸 선미(29)씨가 일본어를 전공하게 된 것도 이때문이었다. 막내인 아들 희찬(27)씨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업받기 위해 아예 식품공학을 전공했다. 3대째 세계 최고 녹차제조의 길이 이어진 것이다. 신씨는 1994년에는 농림부로부터 작설차 제조 명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8월 일본 수출길이 재개됐다. 신 명인은 지난해에만 3억6천만원 이상의 수출을 기록했다. 올해 계획대로라면 10억대 수출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씨가 생산한 최고급 작설차인 '승설차'는 국내 유명 백화점에 50g당 120만원에 납품되고 있다.

“대량생산을 한다면 연간 100억원대 매출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싸구려 녹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순천에서 세계 최고 품질의 차가 나온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요”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FTA 재협상 없다”

일부 논란에 췌기, 韓中 협상은 고민중

진동수 재경부 차관 밝혀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원칙적으로 재협상은 없다”면서 “미국 의회 등에서 노동문제 등을 추가 논의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정부는 (추가협상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이날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 에스더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미 FTA 재협상·추가협상 논란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진 차관은 “우리측이 추가협상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8차례 협상과 고위급 협상에 우리나라 각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했다”면서 “세부적인 측면에서 (추가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안을 다듬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역외자유무역위원회 설립과 관련해 진 차관은 “미측 입장에서 이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면서 “협상 과정에서 개성공단을 포함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 (개성공단을 포함한다고) 이해했으니 원칙에 합의하지 않았겠다”고 반문했다.

진 차관은 “유럽연합(EU)과는 5월 중에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중국과는 연말까지 진행할 산관학 연구 결과를 검토해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다만 중국과의 FTA는 농업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우니 상당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도 이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가능성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협상은 끝났다”고 잘라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2007 서울모터쇼' 개막식에서 “한미 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협상은 끝났으며,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조문 작업이 남아있다”고 답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반도 기온 6도 상승편

모든 산림생물 멸종위기”

환경부, 100년후 기후변화 예고

한반도 평균기온이 지구온난화로 급세기 말 6도 상승하면 우리나라 기존의 모든 산림생물은 고사되거나 고립멸종 위기에 처하고, 특히 전남은 비수확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환경부가 6일 공개한 '기후변화에 의한 한반도 영향 예측 사례'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지구온난화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20년 기온은 2000년 대비 평균 1.2도 상승하고 강수량은 11% 증가한다.

2050년에는 기온은 3도 오르고 강수량이 17% 증가하면 2080년에는 기온 5도 상승, 강수량 17%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도 상승시 기후대는 위도상 150~550km, 고도는 150~550m 가량 올라간다. /김여욱기자 wool@kwangju.co.kr

평균 4~200km 이동해 기후대 이동을 쫓아가지 못하게 되며 종별로는 소나무 500km, 전나무 300km, 자작나무 2천km, 밤나무 300km 정도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2081~2090년 전국 평균 비 수확량은 14.9% 감소하게 되는데 남서해안 지대가 20.1%로 가장 많이 줄고 특히 전남은 19.4%(108kg/a)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 해수면 상승은 연간 최고 0.6cm로 2100년에는 최고 59cm 높아져 기존의 연안 지역 대부분이 침수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면 온도는 1968년부터 1997년까지 30년간 동해는 0.62도, 남해는 0.61도, 서해는 0.88도 상승했고 해수 기온 상승은 비브리오팀균 등 미생물 증식과 해산물을 통한 질병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김여욱기자 wool@kwangju.co.kr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EXPO 2012 YEosu KOREA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인 유치를
 광주·전남도민이 다함께 지원합니다.

호남예술제

1956-2007 제52회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제전 · 전국대회

국회의장상·문화관광부 장관상 시상!! / 시상범위 확대!!

대회기간
 ● 2007년 4월 23일(월) - 6월 30일(토)
 ● 장소 :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시민회관, 광주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금호패밀리랜드

행사종목
 ● 음악부문 : 성악,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기악, 관악, 현악
 ● 무용부문 : 현대무용, 발레, 한국전통무용, 한국창작무용
 ※ 한국전통무용 초등부 저학년(1·2학년)독무 제외
 ● 국악부문 : 기악, 성악, 가야금(병창·산조), 타악
 ● 작문부문 : 시(동시), 산문
 ● 미술부문 : 인물화 정물화 풍경화 한국화 일러스트레이션 등
 ● 논술부문 : 총괄논술 - 초등부 저학년(1·2학년) 제외
 ● 합창제, 합주제

시 상
 ● 우수학교시상 : 종합최고상, 종합우수상
 ● 단 체 :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 합주제 : 대상, 금상, 은상, 동상
 ● 개 인 : 국회의장상, 문화관광부 장관상,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 우수지도교시상

참고사항
 ● 참가신청 : 광주일보사 호남예술제 접수처(062-220-0541, 222-8111)
 ● 경연일정 : 세부일정 및 장소는 4월 20일자 홈페이지에 확정 발표함.
 ● 관련자료 : 인터넷 한글뉴스(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

미술·작문대회
 ▶ 예 선 : 공모제와 현장 실기대회를 병행 실시
 ▶ 결 선 : 현장 실기대회로 입상자를 선발
 ▶ 예선 공모기간 : 2007년 5월 1일(화) ~ 5월 19일(토)
 ▶ 현장 예선 실기대회 : 2007년 5월 11일(금)
 ▶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외 입선제 도입

논술대회
 ▶ 예선 공모기간 : 2007년 5월 1일(화) ~ 5월 19일(토)
 ▶ 결 선 : 현장 실기대회로 입상자를 선발
 ▶ 초등부 1, 2학년 제외

「새싹그리기 축제」공모
 ▶ 공모기간 : 2007년 6월 1일(금)~6월 19일(화)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외 입선제 도입

장 학 금
 * 국회의장상·문화관광부장관상 : 2100만원
 * 합창·합주제 대상 : 각1팀 50만원
 * 개인·단체 최고상 : 초등 20만원·중등 30만원·고등 50만원

주 최 | **광주일보사**
 협 찬 | **SAMSUNG 삼성생명**
 후 원 | 문화관광부·광주광역시·전라남도·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전남대학교·광주교육대학교·조선대학교·호남대학교·광주대학교·동신대학교·호남신학대학교·초당대학교·광주여자대학교·남부대학교·예총광주시연합회·예총전남도연합회
 특별후원 | **다산문화재단**